

사회



지난달 28일부터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전시 중인 성폭력 피해아동의 그림. 오는 9일까지 전시되는 그림들에는 가해자에 대한 증오가 담겨있다.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그린 내면세계 감옥... 칼... 안타까운 증오심 담겨

#그림1. 할머니가 아이를 혼내는 장면이 왼쪽에 그려져 있다. 오른쪽에는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며, 토끼와 곰이 아이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인다. 초등학교 1학년인 A양은 삼촌에게 1년간 수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도리어 A양을 나무랐다. A양은 삼촌의 성폭행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을 꾸짖는 할머니를 감옥에 보내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그림2. 아이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남성 위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풍선'이 그려져 있다. 엄마는 아이를 애타게 찾고 있으며, 뒤쪽에는 커다란 배가 그려져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 B양은 학원 운전기사에게 성폭행 당한 뒤 가해자에 대한 자신의 보복심리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배는 운전기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두순(58)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그림을 통해 자신의 고통스런 심리 상태를 표현했다. 조두순이 별래가 있는 감옥에 갇혀 마치 머리를 맞고 눈물을 흘리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에는 범인이 처벌을 받길 원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지역 성폭력 피해아동의 그림전시회'에 소개된 그림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 대부분이 나영이처럼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동성폭행이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충격은 물론, 성장 과정에서 증오와 보복심리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4일 오전 10시에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광주도시철도 상무역.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심리치료과정을 보여주는 '아픈 마음으로 행복을 그려요' 그림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들이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의 심리·미술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40여점의 그림이 공개됐다. 이 그림들은 피해아동들의 정신적 충격과 치료과정에서의 심리적 변화 등을 나타냄으로써 시민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성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성폭행은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최근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 성폭행이 심각한 사회악으로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미술 치료를 받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아동들은 가해자는 물론, 사람에게 대해 공격적인 성향을 띠며, 남성의 성기를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등 좀처럼 성폭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임상심리전문가 김해숙(여·36)씨는 "피해아동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부모들이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꺼리고 집 안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라며 "아동들이 조속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적극적으로 상담 및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에 접수된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은 총 779건으로, 한 달 평균 14.7건이 발생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그림 전시회 정신적 충격·후유증까지도 표현 숨기지 말고 적극 상담·치료해야

CCTV가 아동 성추행범 잡았다

광주 운남동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초등생 성추행 뒤 도주 20대 얼굴 '찰칵'

연쇄 살인범 강호순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CCTV가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도 잡았다.

지난달 2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의 한 아파트 상가 2층 화장실에서 광주 모 초교 1년 A(8)양을 성추행한 뒤, 도주한 피의자 오모(29)씨가 지난 3일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 3일 범인을 공개 수배한 지 하루 만이다. 범인 검거에는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2일간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CCTV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경찰은 이 아파트 상가 안팎에 설치된 3~4대의 CCTV 화면에서 지난 달 29일과 30일 오씨로 보이는 인물이 아파트 상가 주변을 사정 답사하는 모습을 찾아냈다. 범인이 키 178cm에 긴 스포츠형 곱슬머리를 한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했다.

경찰은 또 동종 전과자에 대한 탐문을 병행한 결과, 지난 2003년 초등학생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강간치상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2006년 만기출소된 오씨의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사진(2003년)과 CCTV에 찍힌 김씨의 얼굴을 대조한 결과, 두 얼굴이 똑같았다.

경찰은 3대의 CCTV 중 상가에 걸어들어가는 오씨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화면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지난 3일 공개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다. 결국 오씨는 지난 3일 밤 10시 범행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광산구 운남동 자택에 머물다가 들이닥친 경찰에 체포됐다.

오씨는 처음 경찰에서 "불일을 보려고 현장 주변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경 찰은 오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고속버스 추락 승객 12명 사망

3일 오후 인천대교... 12명 부상

지난 3일 오후 1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공항 방향 영종IC 틀게이트를 300m 가량 지난 지점에서 운전사 정모(55)씨 등 24명이 탑승한 고속버스가 도로 밑으로 추락해 1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 사고가 난 고속버스는 경북 포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인천대교를 건너 뒤 영종IC 틀게이트를 지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다가 고장나 멈춰있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던 1t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 도로공사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경주대 임찬호(42) 교수와 아내, 아들,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또 인천에 사는 손자 둘잔치에 가려고 버스에 올랐던 설해용(69)씨가 딸과 함께 숨지고 아내와 외손자는 중상을 입었다.

아울러 호주 어학연수 중 방학을 맞아 집에 들렀다가 다시 출국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사고 버스에 탔던 고은수(여·17)양이 숨졌고 어머니는 크게 다쳤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화물차 운전자와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며 사고 현장 가드레일 시공업체가 설치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위치추적기' 곡성군수 동생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법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곡성군수 후보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의 주도자인 현 곡성군수의 동생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4일 군수 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허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와 짜고 상대 후보의 위치추적을 시도한 임모(50)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500만원, 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는 선거에 출마한 혐의 상태 후보를 감시하기 위해 돈을 주고 범행을 주도한 점,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역행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3일께 곡성읍의 선거사무실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달라"며 임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씨는 허씨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 최모(37)씨 등에게 건네 상대 후보의 선거용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치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또 편의점 강도

3일 새벽 광산구 신촌동서 130만원 빼앗아

지난 3일 새벽 0시25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모 편의점에 30대 초원을 훑기 위해 한 남성이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130만원 상당의 현금·도서상품권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편의점에 설치된 CCTV 화면과 "범인이 170cm의 키에 모자를 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침입,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130만원 상당의 현금·도서상품권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종업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동종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담양 고속도로서 탱크로리 기름 유출

지난 3일 오전 7시께 담양군 봉산면 고창담양고속도로 하행선 33km 지점 송석정터널 부근에서 이모(63·인천시 계양구)씨가 운전하는 울산 80아97××호 탱크로리가 갓길에 정차한 전방8493××호 3.5t 화물차(운전자·박모·50)를 들이받아 탱크로리에 들어있던 아스팔트유 2만 6000ℓ 중 2만ℓ 가 유출됐다.

아스팔트유는 폭 1m 길이 100m의 고속도로 갓길로 흘러들었으며, 고속도로 순찰대와 119소방대원, 한국도로공사 및 담양군청 관계자가 오후 3시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해 굳은 아스팔트유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대구 초등생 성폭행범은 동네 중학생

지난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해당 초등학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이었고, 범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서서경찰은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15·중3)군을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조울증 아들 신변비관 목포서 母子 음독자살

지난 3일 오후 1시20분께 목포시 용당동 모 빌라에 사는 박모(여·51)씨가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둘째 아들(23)과 함께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큰아들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박씨와 둘째 아들은 출동한 119구 조대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각각 이날 오후 4시30분과 5시30분께 숨졌다.

경찰은 "약 10년 전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조울증을 앓아 어머니가 힘들어 했다"는 유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가 신변을 비관해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오토바이 훔친 10대 "그냥 타고싶어"

○"오토바이가 타고 싶었다"며 남의 오토바이를 훔친 절없는 10대 5명이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14)군 등 5명은 이날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매월동 한 필점방 앞에 세워진 50cc오토바이와 100cc오토바이를 훔쳐 달렸다.

○김군 등은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간단한 도구를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돌렸는데 시동이 걸렸다"고 진술.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itr.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수원점: 061-752-9940
 화포점: 061-262-9200
 충정점: 062-227-9970
 익산점: 061-851-2422